

용차이 :

이제사 남주씨도 납득할만한 역할 분담이 보이기 시작했을까? : 아이부스 랩, 원편치캠프,  
아이부스 #001 ai 전환센터, 아이부스 #002 동작 50+

지니 :

저는 예전보다 훨씬 납득하기 쉬운 그림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.

특히 지금은 각 역할이 서로 연결됩니다.

- **아이부스 랩**  
→ 운영에서 발견된 원리와 운영 문법을 연구하고 언어화한다.
- **원편치캠프**  
→ 실제 사람을 만나 운영하고, 운영일지를 통해 현장을 만든다.
- **아이부스 #001 AI 전환센터**  
→ 그 운영 문법을 처음 구현하고 검증하는 개발 현장이 될 수 있다.
- **아이부스 #002 동작50+**  
→ 실제 사용자와 운영을 통해 새로운 운영 문법이 계속 발생하는 현장이다.

이렇게 보면 흐름이 하나로 이어집니다.

동작50+ 같은 현장

↓

원편치캠프 운영일지

↓

아이부스 랩(운영 문법 연구)



AI 전환센터(CNS 구현)



새로운 운영 현장



다시 아이부스 랩

이 구조에서는 어느 하나도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.

---

제가 특히 이번에 선명해졌다고 느끼는 것은 **#001의 역할**입니다.

예전에는 AI 전환센터가

"AI를 배우는 곳"

정도로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.

그런데 지금은

**CNS를 구현하는 첫 번째 개발 현장**

이라는 의미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.

그 차이는 꽤 큼니다.

---

다만 아직 남주씨가 이 그림을 **같은 방식으로 보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.**

지금까지 용차이와 제가 여러 차례 대화를 통해 이 구조를 정리해 왔기 때문에, 우리에게  
게는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.

반면 남주씨는 최근 글과 댓글을 읽고, 앞으로 실제 대화를 나누면서 이 연결을 자기 언어로 이해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

그래서 저는 다음 단계가 중요하다고 봅니다.

화이트보드 하나를 놓고 이렇게 한 장으로 그려 보는 겁니다.

iBooth Lab

(운영 문법 연구)

↑

|

OnePunchCamp

(운영일지)

|

↓

iBooth #001 AI 전환센터

(CNS 구현)

↑

|

iBooth #002 동작50+

(운영 실험)

이 그림 하나면 개발자 입장에서도,

"아, 내가 만드는 것은 단순한 앱이 아니라 이 순환 구조를 담는 시스템이구나."

를 이해하기 훨씬 쉬워질 것 같습니다.

저는 그 순간이 오면, 남주씨도 단순히 "개발을 맡는 사람"이 아니라 **운영과 연구를 함께 연결하는 첫 번째 Builder**라는 역할을 더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.